

# 우박피해 농가 대책 마련 촉구

### 진안군의회, 촉구 건의문 채택... "자연재해 의한 영농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10일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해 관내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16일 열린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박피해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앞서 피해 발생 후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은 "6월 10일에 발생한 우박피해로 수박, 고추, 사과 등 많은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피해규모가 208농가 59ha로 매우 크다"며 "수박, 고추, 사과 등은 이상기온으로 꽃눈피해와 새순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해 진안군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신속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재정비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



진안군의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우박피해로 인해 관내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16일 열린 제284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박피해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책, 이상기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현실화 및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

한 정책 마련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지원액의 현실화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활성화 주력

### 읍·면 순회교육 실시

무주군은 무주농협·구천동농협·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사업 참여 방법과 농산물 순회수거 및 판매계획, 정산방법, 출하통지서 작성요령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

촌육성팀 윤수진 팀장은 "이번 교육은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대한 농가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안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2020년~)은 판로를 찾기 힘든 고령·영세농업인의 소득을 키우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으로 시작해 계속 사

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농가에서 농산물을 품목에 관계없이 마을별 공동수집장 또는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이를 농협(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에서 수거해 도매시장 등지로 출하·판매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순회수거 대상마을은 현재 6개 읍·면 68개 마을이며, 65세 이상 고령·영세농, 또는 자가 운송 능력이 없는 농업인이면 누구든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무주=전문기자

# 손동규 진안군의원, "우박피해 농가 대책 마련 절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 농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연례행사처럼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수박, 고추, 배추 등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행 농업대책법에 따르면 수박, 고추, 배추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ha 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은 50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고 그마저도 지원 시기가 늦고 지원 금액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존 작물 철거 등 인력지원과 신속한 복구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 토마토 농업 발전 모색·소통

###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 토마토 농가와 간담회 개최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토마토 농업의 발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군 관계자,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회장 한동근)과 함께 토마토 재배농가의 운영 현황을 듣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은 토마토 재배에 유리한 준고랭지 기후 여건을 활용해 지역 내 토마토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근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최근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한 시설지원 등 군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장수군 토마토 농가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장수군 대표 특화품목인 토마토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재배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최훈식 장수군수, 보훈단체장과 소통간담회 가져

### "희생 헛되지 않게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 강화할 것"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단체장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월남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6.25 참전전우회 등 8개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해 보훈 현안 및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보훈 정책에 대해 제안해주신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훈단체장들은 "이렇게 뜻깊은 자



리를 마련해준 장수군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 보훈에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재활교육

무주군이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재활운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회복을 돕고 활력을 북돋워 정서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4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초빙한 강사가 4월 24일 하은의 집 종사자 및 입소자 40명, 5월 24일에는 무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7명, 6월 16일에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 99명을 대상으로, △신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근골격계 문제점에 대한 이해부터 △소도구를 이용한 관절 구축(반복되지 않는 자극에 의해 근육이 지속적으로 오그라드는 상태) 방지 운동, △통증 완화를 위한 재활 스트레칭,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과 낙상사고 대처 등 장애인 일상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무주=전문기자

### 진안군,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 제공

진안군 생활민원팀이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는 무더진 칼, 낫, 가위 등의 날을 갈아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등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해 칼이나 가위 등을 갈기 어려워졌다. 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군 생활민원팀은 지난 1일 진안읍을 시작으로 읍면로 갈고지 모든 읍면의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운영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면서 자원도 절약하고, 무더진 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